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이사 58,7-10

[화답송] ..... 시편 112(111),4-5,6-7,8 그리고 9(◎ 4가)



(후렴)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1코린 2,1-5

[복음환호송]..... 요한 8,12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 ..... 마태 5,13-16

[성가안내]

- 입당성가 [421]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 봉헌성가 [414]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 파견성가 [471]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

## 미사 봉헌

### ● 연미사

김준일 베드로, 김영복 아네스  
엄창석 요한, 정인봉, 박은남  
김영복 아네스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이영우, 이태모  
박창기  
민병택 베드로, 강세랑 엘리사벳

### 봉헌

김애희 테클라  
엄창자 요셉이나  
손명희 엘리사벳/익명  
김지영 유스티나  
이상홍 스테파노  
박예하 루치아레나  
강호영 안드레아

### ● 생미사

이경자 벨라렛다  
전마지 마가렛  
강호영 안드레아  
김경련 울릿다  
임창현 아론  
하늘처럼 성가대  
성미나 아가다, 진문자 스콜라스티나  
이경자 울리안나  
성모희

김영숙 카타리나  
강호영 안드레아  
안영옥 분다  
임국빈 토마스아퀴나스  
임영희 골롬바  
임영희 골롬바  
성모희  
성모희  
민정신 아폴로니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2월 9일	박민재 아그네스	박기목 알버트	정유진 콘술시아	임유진 라자로	양미숙 마리아	장철순 장혜윤	장동환 장동엽	김성중 김호진 홍민철 박신희 이경숙 민완준 민덕미 조리디아
2월 16일	이영노 울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김영희 안나	한채희 로사	장해라 마리스텔라	이주연 박보람	조소연 오윤서	박기목 박민재 유정옥 이영혜 안선정 강호영 채봉석 채미재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복음 묵상]

“짠 맛 나는 그리스도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뒤엎고 아름답게 꾸며진 새로운 세상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수 그 세상을 정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할 소명을 주셨다. 곧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비유되는 '소금의 짠맛'과 '빛의 비추임'은 하느님과 깊은 관계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소금과 등불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소금기와 빛의 밝기는 어느 정도일까? 나에게서 소금의 짠맛과 빛의 강도가 제대로 발휘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과연 가정과 일터 안에서 그곳의 부패와 타락을 정화하고 생명력이 유지되도록 하며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몫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정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희생과 봉사로 공동체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주의와 미지근한 신앙으로 공동체가 죽어 가는 것을 방관하거나 혹은 기여하고 있는가?


3%의 소금만 존재해도 바다는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세상이라는 바다 역시 하느님과 깊은 관계로 맺어진 '짠맛 나는 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왜 나에게 이런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게 해 주셨는가?"라는 불평 대신에 그곳을 살맛나는 곳으로 만드는 역할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짠맛 나는 소금과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하자.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자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O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림은.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BRYANT PARK DENTAL**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 다미아노 홀(성당 밖 좌측 20m)

**[오늘의 정기모임 및 행사]**

- **연령회** : 11시, 아래성당
- **성모회** : 11시, 교육관 4호실
- **요셉회** : 11시, 2층 컨퍼런스 룸

**여성 꾸르실료 봉사자 교육**

동북부 울뜨레야 사무국이 주관하는 '여성 제38차 꾸르실료'를 위한 봉사자교육이 1/28 ~ 4/20일까지 13주 동안 뉴저지 가톨릭회관에서 있습니다.

김승애 클라라자매님과 제갈경희 세실리아 자매님이 봉사자교육 수강자로 함께합니다. 많은 꾸르실리스따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행사]**

**성지(聖枝) 수거**

2월 16일(주일)까지 2019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성한 나뭇가지를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는 2월 26일 재의 수요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재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2020 FNYN 청년피정**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 41,10)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이 과거 예수님의 실제 삶을 돌아보며, 하느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곳에 머물며 회복의 시간을 갖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보길 원하는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 장소 : 뉴튼 수도원  
289 US-206, Newton, NJ 07860
- 일정 : 2.29(토)8am출발-3.1(일)오후 도착
- 참가비 : \$135
- 신청문의 : 유대건 미카엘631.655.1733  
cloudryu123@gmail.com /  
Kakao카톡: cloudryu123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쫓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들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2,120 이동혁 김성모 송명자 정희자 김차순 채봉석 박종옥 한시찬 민정신 노혜영 정봉애 배인철 윤동진 양복연 김애희 김창훈 이경자(울) 경원우 이병국 민완준 주현경 이성수 셸리나해지스 유재상 박인영
감사헌금	\$ 550 오주는 임국빈 오동훈
합 계	\$ 2,670

❖ 꽃봉헌 : \$ 20 노혜영

**2월 성경 공부**

수요일 12.19.26	2:30-3:45Pm 7:15-8:30Pm	클레어 룸
주일 9.16.23	1:30-2:50Pm	코리안 컨퍼런스룸

**2020 교무금 책정을 하셨나요?**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165조).

교회는 교회 운영비인 교무금을 신자들의 의무 중 하나라고 규정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아직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책정해보면 어떨까요?

**성경통독을 위한 입문서 예약판매**

지난 한 해 동안 주보를 통해 연재되었던 "성경맛들이기"를 모아 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도서성물부에 신청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참여 신청(시민권자 제외)**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고/신청기간 : 2020. 2.15까지  
◦ 신고/신청방법 : 인터넷이용(ova.nec.go.kr)  
◦ 투표기간 : 2020. 4.1-4.6  
√귀국투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1) 전에 귀국한 재외 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국내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성경구절]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탈출 3,4)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탈출 3,12)

저의 미국 생활은 10개월간의 예비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가족들과 유독 더 끈끈했고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저였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뒤엔 바로 돌아올 테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곧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일자리를 얻어서 좋은 경험을 쌓을 기회가 생겼고 그렇게 미국에 1년을 더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첫 직장 생활은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처음으로 교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까지 교육을 받고 자라 미국 교육시스템도 낯설었고 언어도 유창하지 못한 제가 얻게 된 이 기회는 감사했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미국인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수업을 할 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 것 같았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도와야한다는 책임감이 저에게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느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 저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던 성서말씀이 바로 모세와 하느님의 대화였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하고 응답합니다. 본인은 부족하다고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지만 하느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며 모세를 달래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7년이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의 제 삶을 돌아켜보면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은 두려움과 부담감에 ‘제가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모세처럼 대답하게 합니다.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저는 가질 수 없고, 주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과 부르심에 두려움보다는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키우려 노력해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때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청해봅니다. ♠

본당 게시판

[행사 후기] ♡청년음악피정  
2월 1일 토요일, 청년 찬양팀 주관으로, 40여명의 청년들이 '심'이라는 주제로, 다미아노홀에 모여 음악 피정을 하였습니다. 처음 마련한 '음악 피정'이었지만, 찬양팀과 봉사자들의 준비, 그리고 다미아노홀이 만들어 낸 피정 분위기,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심'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미래를 다짐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악 피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찬양팀, 봉사자 여러분들과 후원해 주신 본당 공동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김화자(소화테레사) 정인해(예로니모)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테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김동희(헬레나) 고종호(마태오)

[감사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내신 분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박정은(마리아)

[추천도서]



정태현 지음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삼분의 일이나 차지하는 비유를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상을 똑바로 이해하는 지름길을 역설하며, 비유의 저마다 독립적인 메시지를 자세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안에 숨겨진 주제와 메시지를 발굴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이 책을 도서성물부에서 만나보세요^^